

‘K-POP 슈퍼노바, 김명곤으로부터’

음악 천재 ‘김명곤 첫 추모전’ 30일~11월 6일 서울 성수동 ‘성수나무’ 서 개최

1980~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한 음악가 고(故) 김명곤(1952~2001)을 기리는 첫 추모전이 열린다.

‘사랑과 평화’의 원년 키보드 멤버로 출발해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편곡한 그는 ‘가요톱텐’ 89주 연속 1위곡을 만든 천재 프로듀서로 평가받는다.

전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성수동 ‘성수나무’에서 열리며, JTV 전주방송이 주관하고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전시 제목은 ‘K-POP 슈퍼노바, 김명곤으로부터’다.

기획을 맡은 송의성 PD(JTV)는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순간, 그 중심에는 김명곤이 있었다”며 “그의 예술혼과 선한 영향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김명곤이 남긴 87권의 자필 악보를

모은 ‘선율의 숲’ 섹션으로 시작된다.

‘환희’,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등 그의 손에서 탄생한 명곡들이 공개되며, 예술가로서의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다.

생전 언론 노출이 적었던 김명곤의 사진과 음성, 영상 자료도 처음 공개된다.

유족의 협조와 AI 복원을 통해 완성된 자료는 그의 생생한 작업 현장을 되살린다.

또한 지난해 방송돼 큰 호평을 받은 JTV 특집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의 사운드 혁명’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팝업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전시 기간에는 김형석, 윤일상, 구창모, 배수연, 김광석 등 당대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토크가 열린다.

김명곤 추모를 제안한 윤상 프로듀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며, 사회는 평론가 김영대가 맡는다.

다.

이후에는 김명곤의 미공개 음악과 오아시스 레코드의 희귀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청음회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방송문화진흥회 2025 방송문화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김명곤의 고향 전북에서도 전시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 예술계와 전주공고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며, 전주 출신 김철규 작가가 현장작품을 선보인다.

송의성 PD는 “김명곤은 예술가이자 음악인의 권리를 지키려 했던 선구자였다”며 “그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K-POP의 뿌리를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담다, 세상을 잇다’를 새 슬로건으로 내건 JTV 전주방송은 전시를 통해 K-POP의 역사와 한국 대중음악의 자긍심을 되새기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5)

육시를 할 놈들.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무당이 많이 사라졌다 해도 신동택이나 연기택은 당골대로서 자신들의 당골판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고 그녀들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굿패는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물론 무장면 덕림리에 사는 유림 정방규는 용오정사에서 굿패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굿패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왜놈 관원이나 다른 향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쇠가 되는 물건은 요강단지마저도 공출해가는 형편이라 팽과 리나 징 같은 쇠붙이를 마음대로 들어 내놓고 집안에 전시할 수는 없어 나뭇가지를 굴러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굿과 당산굿 등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나뭇 고창지역 마을 사람들은 눈에 들어나지 않게 정안수라도 떠놓고 간소하게나마 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굿이나 당산굿을 이어가는 마을도 몇몇이 남아 있었고 송계리 도산마을도 그중 하나였다.

도산마을에도 마을 나뭇의 굿을 치는 이들이 있어 패를 만들 수 있었지만 당산제 같은 적이 있는 제를 지내려면 실력 있는 굿패가 필요했고, 마을에서 따로 강병도와 박규원이 속해 있는 굿패와 신동택이나 연기택 같은 무당을 같이 불렀던 것이다.

굿 연행은 외부의 굿패와 마을의 패가 같이 합동 연행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었다. 도산마을 굿은 대로를 전날 오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희들도 갈 거냐?”

연기택이 남준과 명희에게 물었다.

“예, 가야지요. 굿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이 어디 있다고요. 해해해.”

“많이 추울 텐데도?”

“우리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추울 텐데…….”

“누가 당골래 자식들 아니랄까봐. 호호호.”

신동택과 연기택 내외는 남준과 명희가 대견한 듯 웃었다.

다음날 남준과 명희는 오후부터 시작될 도산마을 굿 구경 갈 기대에 마음이 풍선을 달고 하늘 높이 떠올라 있는 터라 교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급증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던 둘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리듯 남준의 집이 있는 봉림마을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경

주하듯 뛰어갔다. 집에 닿으면 굿패들이 갖가지 화려한 색상의 옷들을 입고 굿을 하러 출발할 준비를 차리고 있을 터였다.

모퉁이를 돌아서 집근처에 다다랐으나 웅성웅성해야 할 사람들의 인기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 굿판을 뿔 치배와 잡색들로 집안이 북적거려야 할 텐데 웬일이지.

고개를 가웃중하며 싸리문을 들어섰으나 마당에도 마루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땃돌에 놓여 있는 신발도 남준의 부모님 것으로 보이는 것만 있었다.

게다가 작은 방과 광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 가재도구들이 마당에 어지럽게 나와 흩어져 있었다. 명희는 마당에 서 있고 남준만 땃돌로 올라가 안방 문을 열었다.

방에는 신동택과 아버지 강병도의 있었는 데, 강병도는 이마에 깊은 고랑을 파고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면에서 나와서 팽매기랑 팽을 모두 가져가버렸다.”

신동택이 아버지 강병도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고는 말을 했다.

“육시를 할 놈들…….”

강병도는 한숨과 함께 곰방대를 연거푸 빨아 연기를 푹푹 내뿜으며 육자기를 빨아냈다. 동생 남준도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굿은……?”

“굿패는 못 가고 아버지랑 어매하고 명희 아버지랑 명희 어매만 가기로 했다.”

문밖에 서 있던 명희도 풀이 죽어 고개를 깊숙이 숙여 강병도와 신동택에게 인사한 뒤 싸리문 밖으로 나갔다.

“도산에는 쇠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먼저 탈이 나서 가져가버리고 우리한테도 와서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아버지 강병도가 화가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대꾸해왔다.

“그놈들 곧 망할 거야. 망하고 말 거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발악을…….”

점괘를 물어내듯 신동택은 중얼거렸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성료

전 세계 50개국 3109점 작품 전시… 30일간 10만여명 이상 방문

‘고요 속의 울림(靜中動)’을 주제로 한 달간 세계와 전북을 물들인 ‘제15회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지난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올해 비엔날레에는 전 세계 50개국 3,109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는 2023년 40개국, 2,407점 전시 대비 10개국, 702점(30%)이 증가한 수치로, 꾸준한 해외작가 발굴과 주한 외교사절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값진 결과다.

또한, 한글서에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고,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목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글서예’를 중심의 작품들로 구성했으며, 청년



‘제15회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지난 2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작가들의 실험적 시도를 지원하는 「K-SBOYE ART」 전시, 천여 명의 종교인이 참여해 서예

를 통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한 「서예로 만나는 경전(千人千經)」 등 총 18개의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도민 참여를 위한 홍보포스킹 등 색다른 부대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유치에 큰 성과를 거뒀으며, 그 결과 약 10만여 명이 비엔날레 전시장 방문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서예문화축제로서의 위치를 다졌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한 달간의 행사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내줘 감사드린다”며 “올해 행사는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도약이었으며, 한국 서예가 전통의 기반 위에 현대적 융합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6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2027년 4월 준공 예정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광한루원 음악회’ 성황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남원의 대표 문화유산 광한루원에서 진행한 목요 상설공연 ‘2025 광한루원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품격과 자연의 정취가 어우러진 무대로, 올해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총 9회 진행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국악의 깊은 울림과 예술의 향기를 선사했다.

올해 ‘광한루원 음악회’는 대금과 가야금의 맑은 선율로 막을 열고, 관소리 ‘춘향가’의 눈

대목을 비롯해 남도민요와 민속무용, 단막창극,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 무대로 구성해, 완월정 누각과 연못을 배경으로 펼쳐진 약 50분의 공연은 자연의 풍광과 예술의 감성이 어우러진 한 폭의 장면처럼, 관객들에게 국악의 멋과 정취를 깊이 있게 전했다.

김중현 원장은 “광한루원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전통음악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 깊었다”라며 “국립민속국악원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농협

고창농협 조합장 유덕근 선운산농협 조합장 김기육 대 성 농 협 조합장 박윤규
해리농협 조합장 김갑선 흥 덕 농 협 조합장 백영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오교율